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9(성도여 다 함께) 다 갈 이
※ 교 독 문 21(시편 34편) 다 갈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314장(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강은순전도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	
*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되게 하소서.	
*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사도행전 4:32-37 김혜경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라 -코이노니아3>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220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갈 이
봉 헌 (4 구역)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최세열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일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기 도 / 오복실권사	본 문 / 담후 1:7-14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디도서3:1-15	인도 : 담임목사 (마태복음강해)	
말 씬 / 최세열목사	바울 목회자 7스피릿/제2과정	말 씬 / 최세열목사	“하나님의 은혜”	금요기도회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목회자	주기도문 / 다함계	주기도문 / 다함계	당분간 쉽니다. 개인기도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 음 주 기 도	1부	이경훈전도사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7월 김기희 신공님 허 웅 김귀례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인 도 자
		8월 최경선 주중임 안해숙 김연학		2부	류종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B	다음주 사라희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혜경권사	
헌신찬양	금주	4 구역	다음주	5 구역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라-코이노니아3 /사도행전4:32-37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입니다. 이 같은 다섯 가지의 주제가 균형 있게 감당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받아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사도행전2:42-47).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제는 무엇입니까?

1.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깊은 마음이고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과 같이 성도의 하나됨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고, “서로,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공동체는 두 가지 삶의 내용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 됨을 지향하는 것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둘째는 삶을 나누는 것으로, 이는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의미를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비유합니다(고전12장). 성도의 교제는 하나 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거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재능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 이는 동시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욕심과 탐심과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의 삶을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탐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면과 감정을 넘어서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지 간에 나누는 자와 나눔을 받는 자가 오직 은혜로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식탁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식탁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식탁교제는 서로 한 가족임을 의미했고, 하나 됨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이같은 식탁교제를 성찬의 의미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제를 이루고,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탁교제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제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고후13:13). 우리는 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믿음과 세례를 받았으며,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친교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성령강림후 여덟째주일(7월 27일)

제 31 과 숨 쉬는 사람마다(시편150편 1-6절)

(함께 읽을 말씀 : 마태복음 5장 25-26절, 에베소서 1장 11-14절)

말씀묵상

1. 사람의 삶, 생명은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 그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숨쉬기'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한 한순간도 숨쉬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숨쉬기는 생명의 기초입니다. 숨쉬기가 부실하면 자연히 몸도 부실해집니다. 거꾸로 숨쉬기를 실하게 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성인병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전한 호흡의 절반도 못 되는 얇은 숨을 쉬며 사는데, 하루 한두 번 폐 속까지 다 채우는 온전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국민체조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숨쉬기 운동이었지요? 숨쉬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바른 숨쉬기,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손해 볼 일도 아닌데 한 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2. 그런데 바른 숨쉬기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바른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숨을 크게 쉬기 위해 어떻게 할까? 대부분 크게 숨을 쉬라고 하면, 먼저 잔뜩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산에 오르거나 시골에 갔을 때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잔뜩 들이마시는 거지요. 폐부 깊숙이 좋은 공기를 마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숨을 온전하게 쉬기 위해서는 들이마시지 말고, 먼저(!)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뱉어내야 합니다. 속에 차 있는 것을 온전히 그 바닥까지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숨쉬기는 호흡(呼吸-내쉬고 들이쉬)이지 흡호(吸呼-들이쉬고 내쉬)가 아닙니다. 폐를 바닥까지 비우고 나면 굳이 용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선한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힘은 비우는데 쓰는 것이지 채우는데 쓰는 게 아닙니다. 비운 만큼, 딱 그만큼만 채워집니다. 무엇 보다 호(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냄이 먼저입니다. 버림이 먼저입니다. 비움이 먼저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엉덩이를 때려서 울음을 토해 내게 하면 아기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 울음이 바로 호(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呼)로 시작되었습니다.

3. 숨은 육체의 생존을 위한 기초대사일 뿐 아니라 영적 생명의 거룩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 위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거룩한 바람이 임하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숨의 원리, 호흡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호(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기도)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그것입니다. 흡(吸)은 우리의 호(呼)에 응답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기도와 찬미와 은총의 호흡으로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우는 연습 좀 해볼까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청년회 수련회가 7월 31일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담당: 김기수집사)
3. 구역예배와 금요기도회를 몇 주간 쉽니다. 주보를 참고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휴식기간 : 7월 27일 주간 - 8월 10일 주간까지.
4. 청소년부 수련회가 8월 4-6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경기노회가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김숙희 지대근 엄정현 천사라 최임춘 윤승호 최경선 김선주 원혜경 정혜진 박경자 김귀례 김범진 김인순 김애자 홍강의 김성희 김홍영 이용훈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김애자 박정일 김범진 이종춘 심문자 노재의 김영란 김지환 양희임 무 명 (일천번제)김동현
- 맥추감사 : 이문순 임병호 김경희 무 명
- 건축헌금 : 김애자 김귀례 김범진 홍강의 김성희 선우명환 장영분 루디아희
- 비전씨앗 : 배영인 황은상 박주환 안채빈 전광현 전윤화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이현옥	3	12,000	10	교 회	7	강은순	이영선	교 회	2	6,000	70	교 회
2	정정희	김한순	김한순	5	39,000		교 회	8	김순님	오복실	허 응	5	22,000	80	교 회
3	이준호	황경숙	교 회	3	15,000	100	교 회	9	김인순	이영란	김선재	3	11,000	150	교 회
4	김기희	최경선		4	16,000		교 회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4	33,000	190	교 회
5	이문순	원혜경	서영자	4	17,000	20	교 회	계				37	188,000	877	
6	류종란	김애자	김애자	4	17,000	257	교 회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원수와 함께 나눈 체온

터키의 어느 시골에 잔이라는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 눈보라는 심해지고 날씨는 몹시 추웠으나 잔은 긴급한 일이 있어서 50리나 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두꺼운 털 옷을 입고 길을 떠났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온 몸도 점점 얼어붙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서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잔이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아르메니아인의 재물을 약탈해 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기 나라의 원수인 터키 사람이었다. 잔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곧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터키인에게 입히고 등에 업어서 가까운 마을로 갔다. 몹시 추운 날이었지만 먼 길을 힘들게 걸노라니 온 몸에 땀이 흘렀다. 또한 등 뒤에 업은 터키인도 더운 기운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말기는 소금물로 씻어야 살균도 되고 소금의 짠맛에 의해 단맛도 증가된다. 사과, 배, 파인애플, 감 등 각종 과일을 섞어 만든 샐러드 드레싱은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인해 묽어지기가 쉽다. 이럴 때 샐러드에 땅콩을 갈아 넣으면 과일의 수분이 흡수되어 물기가 생기지 않아 한결 좋아진다. 게다가 땅콩의 고소한 맛이 과일과 한데 어우러져 맛도 좋아진다. 건포도를 오래 놓아두면 뻑뻑해져 맛이 덜하다. 이럴 때는 건포도에 포도주나 물을 뿌려 랩을 씌운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어 30초 정도 가열하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생선을 석쇠에 올려놓고 굽다 보면 껍질이 철사에 눌러붙어 생선이 불품없게 된다. 이럴 땐 석쇠에 식초를 살짝 뿌리듯이 발라보자. 신기하게도 생선이 눌러 붙지 않고 깨끗하게 구워진다. 콩나물을 삶을 때 중간에 뚜껑을 열어 김을 빼면 비린내가 난다. 콩나물의 비린내는 지엽, 뿌리, 씨눈, 줄기 순서로 많이 난다. 이럴 때 마늘과 소금을 약간 넣고 삶아보자. 뚜껑을 열어 김을 빼도 비린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맛과 냄새가 좋아진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0

2014.7.27.

7월의 기도 4

불길같이 임하신 성령님
저희의 지난 죄악을 불사르시어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곳 거룩한 전에 모두 모여
영광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 푼대를 바라보며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며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벅찬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저희의 욕심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샘솟는 능력을 허락하셨으나
저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살았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물고기와 떡으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 기적을 베풀게 하소서.
묵묵히 땀 흘린 노동이 수고의 대가를 얻고
여름내 수고한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얻고
힘없는 약자의 한 맺힌 억울함이 사라진 세상,
새 하늘 새 땅의 기적을 이루어 주소서.
살과 피를 나누어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교회 행사

1. 평신도 참여예배 - 7월 20일 - 루디아희
2. 해든술선교활동 - 7월 12일(토) 오전 8:30
3. 어린이부성경학교 - 6월29, 7월 6,13일 - 7월19,20일
4. 청년회 수련회 - 7월 31일(목)
5. 청소년부수련회 - 8월 4일-6일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